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여성·아동, 가정폭력 보호조치 대폭 강화	파리
문화·관광	3	경전철 내 거리공연 '버스킹' 확대	시애틀
사회·복지	5	'에이즈 없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파리
도시교통	7	'대중교통 악영향' 우버·리프트에 통행세 인상	시카고
	8	'차·자전거·사람 함께 이용' 공유도로 도입 잇따라	시카고·뉴욕
도시계획·주택	10	주택·그린벨트 등 개발방향 담은 중장기 도시계획	런던
정보·기타	12	180년간 시민죽보·장례정보 DB 구축해 제공	버밍엄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편집출간팀 담당자(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뉴욕	이창주
	황 하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용훈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파리	배세진
	양영란
원헨	선지원
베를린	유진경
바르셀로나	진광선
시드니	정용문
도쿄	김민주
	이승민
	이용원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홍콩	강민이
싱가포르	서보경
피렌체	김예름
스톡홀름	허윤희

여성·아동, 가정폭력 보호조치 대폭 강화

시 차원 프로젝트...시·검찰청·복지청과 협력할 시민단체 공모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가정폭력의 주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함께하기 프로젝트’(Accompagnement Protégé)를 시범적으로 1년간 시행하기로 하고, 시정부·파리 검찰청·프랑스 복지청과 협력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민단체를 공모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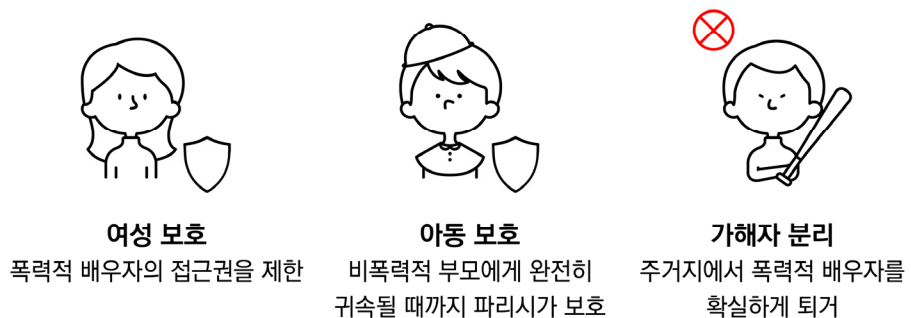
- 파리는 가정폭력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꾸준한 노력
 - 2010년부터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이 인지될 때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폭력적 배우자의 퇴거, 아동의 즉각적 보호, 제삼자의 공적 개입 등이 가능
 - 2012년부터 TGD(Téléphone Grave Danger)라는 가정폭력 전담 상담 전화를 도입
 - 2014년 11월에는 가정폭력의 빠른 인지와 개입을 위한 인지시스템 구축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도 여성·아동 폭력의 방지에 관심
 - 여성폭력 관찰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여성폭력에 관한 시의 정책을 완전히 재정비
 - 아동이 겪는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
 - 2012년 샌-생드니 지역에서 시행했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보호 조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안 제시
- 가정폭력에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 제기
 - 가정폭력 피해아동은 신체적·인지적 발달에 지장을 받고,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만으로 트라우마 발생
 -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도 있지만, 그 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우선

- 주요 내용

- 파리시, 파리 검찰청, 프랑스 복지청이 시민단체와 협력해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여성과 아동의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프로젝트

- 세 가지 주요 목표
 - 1) 여성 보호: 폭력적 배우자의 접근권을 제한
 - 2) 아동 보호: 비폭력적 부모에게 완전히 귀속될 때까지 파리시가 보호
 - 3) 가해자 분리: 주거지에서 폭력적 배우자를 확실하게 퇴거
- 폭력적 배우자로부터의 분리뿐 아니라, 분리 이후에도 시정부가 피해자와 함께 하며 보호하는 것이 핵심
- 유치원·학교 등에 배치된 사회요원과 교직원이 아동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가정폭력의 유무를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
 - 사적 공간인 가정은 직접적 관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등의 공공 기관에서 아동을 관찰해 가정폭력의 증상을 포착하는 아이디어
-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면 몇 년 더 연장할 계획
- 함께하기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를 공개모집
 - 다양한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고, 관련한 여러 사회적 행위자와 소통 가능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 20가지 이상의 관련 기획을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단체
 - 선발위원회와 지도감독위원회가 서류심사로 시민단체를 선정
 - 시민단체가 제안한 기획의 효율성, 유연성, 기술적 수준 등을 평가
 -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교육을 받은 인력, 자원봉사 가능 인력 등을 중시

여성·아동을 가정폭력에서 보호하는 ‘함께하기 프로젝트’



[그림 1] ‘함께하기 프로젝트’의 세 가지 주요 목표

<https://www.paris.fr/actualites/appele-a-projet-dispositif-experimental-d-accompagnement-protège-5265>

<https://api-site-cdn.paris.fr/images/96122>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문화·관광

경전철 내 거리공연 ‘버스킹’ 확대

미국 시애틀市 / 문화·관광

- 미국 시애틀市의 공영 운수회사 사운드 트랜짓 (Sound Transit)은 6개월간 2개 경전철역에서 시범적으로 버스킹(거리공연)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많은 시민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원함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올 9월부터 8개 역으로 확대 시행
- 배경
 - 지역 경전철 이용자에게는 새롭고 풍성한 문화경험을 제공하고, 음악가에게는 더 많은 관객을 만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
 - 6개월간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역과 캐피톨 힐(Capitol Hill)역의 2개 역에서 각각 2곳을 지정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
 - 버스킹 프로그램의 고정적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 설문조사 결과 많은 시민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원함을 확인
 - 파일럿 프로그램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지난 9월부터 8개 역으로 확대 시행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지정된 장소에서 최대 2시간의 공연이 가능
 - 공연이 허용된 장소에는 별 모양의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운영
 - 원칙적으로 모든 공연은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통행량이 많은 일시(지역 대학의 미식축구 경기가 있는 날 등)에는 공연을 불허
 - 최대 5명이 함께 공연할 수 있고, 앰프 사용은 불가능
 - 6명이 넘는 팀은 공연의 내용과 일시, 소요 시간 등을 적어 2주 전 담당자에게 제출
 - 일반적인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나이프 묘기, 불 쇼 등 위험한 공연은 금지



[그림 1] 경전철역 내 거리공연 허용장소 표시



[그림 2] 경전철역 내 거리공연 모습

출처: Alex Garland/CapitolHillSeattle.com

<https://www.theurbanist.org/2017/09/18/station-busking-program>

<https://www.soundtransit.org/About-Sound-Transit/News-and-events/News-releases/sound-transit-adds-six-light-rail-stations-busker>

<https://www.soundtransit.org/sites/default/files/busker-guidelines.pdf>

<http://www.capitolhillseattle.com/2016/09/sound-transit-begins-pilot-allowing-buskers-at-capitol-hill-station/>

김용훈 통신원, kim523@uwindsor.ca

사회·복지

‘에이즈 없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2030년까지 신규 에이즈 감염률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에이즈 없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 해소, 에이즈 검사 장려, 에이즈의 확산을 막는 약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
- 배경
 - 파리지에서 공식 집계된 총 에이즈 감염자 수는 15만 명
 - 2013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로 확진을 받은 시민은 6,200여 명
 - 이 중 1/3은 너무 늦게 감염 사실을 알았고, 12%는 25세 이하
 - 현재 3만여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 파리지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2030년까지 신규 에이즈 감염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선언
 - 에이즈의 확산을 차단해주는 약품의 개발에 힘입어 신규 감염자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화
 -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정기적인 투약이 이루어지면 성관계나 혈액을 통한 에이즈 전염도 막을 수 있음
 - 매년 발생하는 신규 감염자 6천여 명 중 20%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실정
- 주요 내용
 - 사회경제적 차별과 에이즈
 - 적절한 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아프리카 출신, 동성애자, 하층계급 등)의 에이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주목
 - 취약계층을 에이즈 치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파악하고, 이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2016년 1월부터 에이즈 감염자와 함께 사는 파트너에게도 확산을 막는 약품을 처방하고 건강보험금을 환급

- 에이즈 없는 파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
 - 에이즈 감염자를 향한 사회적 차별을 약화하기
 - 에이즈 감염자를 존중해주고, 모든 감염자에게 차별 없이 의료정보를 공유
 - 에이즈 확산 저지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감염 진단을 장려
 - 11개의 무료 에이즈 관리센터와 병원·보건소 등 15개 지정장소에서 진단이 가능하고,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도 존재
 -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사람은 약국에서 간단한 자가진단이 가능
 - 콘돔의 보급: 시정부는 한 시민단체와 함께 상당량의 무료 콘돔을 배포하고, 시립 스포츠센터마다 저렴한 가격의 콘돔자판기를 설치
 - 파리시 병원에서 에이즈 관련 환자는 별도로 응급실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
 - 에이즈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 2016년 180만 유로(24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28개의 세계적인 에이즈 퇴치 프로젝트와 18개의 관련 사회단체를 지원
 - 2017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 투쟁의 날을 파리에서 개최
- 2020년까지의 목표
 - 1) 파리시 에이즈 감염자 중 90%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기
 - 2) 감염 사실을 인지한 감염자 중 90%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 3) 치료 중인 에이즈 감염자의 90%를 더는 병을 전염하지 않는 상태(CVI: Charge Virale Indétectable)로 만들기



[그림 1] '파리를 에이즈 없는 사랑의 도시로 만들자' 포스터
(포스터 주인공인 토마(Thomas)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에이즈 전문센터에서 검진을 받는다)

<https://www.paris.fr/parissanssida>

<https://www.paris.fr/actualites/les-villes-s-engagent-a-mettre-fin-au-sida-d-ici-a-2030-2304>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도시교통

‘대중교통 악영향’ 우버·리프트에 통행세 인상

미국 시카고市 / 도시교통

- 미국 시카고市는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대중교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1회 운행에 부과하는 통행세를 0.37달러(400원)에서 0.52달러(570원)로 인상하고 증가한 세수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사용하기로 결정
- 배경
 -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대중교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연구결과
 - 버스와 경전철의 이용률을 각각 6%와 3% 낮추는 것으로 분석
 -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심을 배회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가중
 - 이에 따라, 시카고시장 람 이매뉴얼(Rahm Emanuel)은 차량공유 서비스에 더 많은 통행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기존 통행세는 일반 기금에 속했지만, 인상분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할 계획
- 주요 내용
 - 1회 운행당 통행세를 0.37달러(400원)에서 0.52달러(570원)로 인상
 - 2018년 1,600만 달러(174억 6,700만 원), 2019년 3천만 달러(327억 5,1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 시카고 교통국(CTA: Chicago Transit Authority)은 이 기금으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
 - 시카고 지하철의 신호·노선 체계개선, 수송용량 확대, 고객센터 개선, 오래된 노선의 현대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
 - 이매뉴얼 시장은 통행세 인상을 활용한 대중교통 개선이 시가 추구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밝힘

<https://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7/11/chicago-uber-tax/546845>

김용훈 통신원, kim523@uwindsor.ca

‘차·자전거·사람 함께 이용’ 공유도로 도입 잇따라

미국 시카고市·뉴욕市 / 도시교통

- 미국 시카고市와 뉴욕市는 차·자전거·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도로(Shared Street 또는 Shared Space)가 기존의 일반도로보다 사고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실험적으로 이를 도입해 효과를 관찰 중

- 개요

- 공유도로는 자동차·자전거·보행자의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
 - 신호체계, 경계석, 울타리, 도로이용을 구분하는 표지판 등을 제거
- 기존도로보다 사고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 다수
 - 운전자는 신호가 있으면 신호에만 집중하고 다른 보행자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신호가 없으면 주위를 살피는 데 더 많이 노력
 - 기존에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담당하던 역할을 도로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 (눈을 맞추며 우선 통행을 결정)을 바탕으로 해결하도록 함
-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 통행하도록 하는 인식 교육과 도시 디자인을 병행할 필요
 - 기존의 복잡한 신호체계, 안내표지, 전용도로 구분 등을 모두 없애 운전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
 - 모든 도로 이용자가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도시에서 도입 중
 - 공유도로를 도입한 후 차량 통행량이 줄고 보행자가 늘어나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결과가 관찰
 - 공공공간을 더 활동적으로 만들고 보행의 매력을 유지

- 주요 내용

- 시카고시는 지난해 9월 아가일 스트리트(Argyle Street)를 공유도로로 재설계
 - 유럽의 사례를 참조해 360만 달러(39억 3,100만 원)를 투자
 - 더 많은 보행자가 유입되고 주변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 혼선과 주차공간이 잘 구분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은 지속 개선할 계획

- 뉴욕시는 지난해 8월 시범적으로 금융가(Financial District)에서 하루 동안 차량 출입을 막고 공유도로로 운영
 - 이후 가능한 구간에서 선택적으로 공유도로를 확장 중



[그림 1] 시카고시 공유도로 개념도



[그림 2] 영국 브라이턴(Brighton)시의 공유도로

<http://www.chicagotribune.com/news/local/breaking/ct-chicago-shared-street-uptown-met-20160912-story.html>

<https://nyc.streetsblog.org/2016/08/15/first-ever-shared-streets-brings-stress-free-streets-to-financial-district>

김용훈 통신원, kim523@uwindsor.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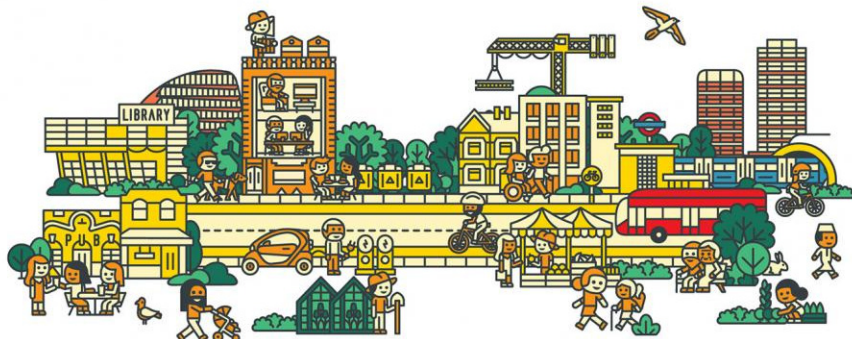
도시계획·주택

주택·그린벨트 등 개발방향 담은 중장기 도시계획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지난 12월 4일에 앞으로 20~25년간 런던의 도시 환경 개발의 방향성을 담은 중장기 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온라인 협의회에서 공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
- 주요 내용
 - 시정부가 공개한 런던 중장기 도시계획 초안 중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택(Housing)
 - 런던 인구는 매년 7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2041년에는 1,080만 명에 이를 전망
 - 기존의 주택 공급계획을 대폭 수정해 훌륭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새로운 안을 발표
 - 그린벨트(Green Belt)
 - 칸 시장은 영국 수도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 지역과 공용녹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
 - 2050년까지 런던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녹지와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
 - 화재 안전(Fire Safety)
 -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안에 따라 시행될 모든 개발사업은 시정부에서 정한 가장 높은 수준의 화재 안전기준을 따라야 함
 - 그렌펠타워 화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신축 건축물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비상 탈출시설을 철저하게 구비
 - 펍(Pubs)
 - 주로 맥주와 간단한 음식을 파는 영국식 술집인 펍은 단순한 술집이 아닌 영국의 문화이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하는 장소
 - 그러나 2001년 이후 런던에서만 연평균 81곳의 펍이 문을 닫는 상황

- 펍의 영업 지속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에 새로운 펍이 적절한 지역에 오픈할 수 있도록 요청
- 테이크아웃 음식(Takeaways)
 - 영국에는 자국 음식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못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들어와 있으며, 특히 런던에는 테이크아웃이 쉬운 길거리 음식점이 많이 늘어난 상황
 - 어린이와 청소년이 질 낮은 길거리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근처에 길거리 음식점의 신설을 규제할 계획
- 자전거(Cycling)
 -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
 - 새롭게 개발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주차공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제공할 계획
- 공공 화장실(Public Toilet)
 - ‘Age UK’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응답자의 50% 이상이 쇼핑하면서 겪는 불편적인 문제로 ‘화장실이 너무 부족함’을 선택
 - 무료 공공 화장실을 더 많이 설치하고, 고령자, 장애인, 육아 가정, 성소수자 등 모든 세대와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압파쇄공법(Fracking) 금지
 - 수압파쇄공법은 지하 세일층에 고압의 물을 주입해 세일가스나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로 최근 환경오염 논란이 있음
 - 칸 시장은 런던 내에서 모든 수압파쇄공법의 시행을 반대



[그림 1] 런던 중장기 도시개발 계획 이미지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eight-highlights-mayors-draft-london-plan>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london-plan/new-london-plan/comment-draft-london-plan>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정보·기타

180년간 시민죽보·장례정보 DB 구축해 제공

영국 버밍엄市 / 정보·기타

- 영국 버밍엄市는 도시 내 11개의 공동묘지와 3개의 화장터를 전수조사해 1836년 이후 180년간의 버밍엄 시민의 죽보와 선조의 생전 주거지·사망일 등의 장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
- 주요 내용
 - 11개 공동묘지와 3개의 화장터를 대상으로 1836년 이후 버밍엄市 내 11개 공동묘지와 3개의 화장터에 매장되거나 화장된 고인의 정보를 전수조사
 - 총 450에이커(1,821km²) 규모의 묘지와 화장터
 - 1836~2014년의 버밍엄 시민죽보와 장례정보 데이터 1,500만 개 확보

[표 1]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공동묘지와 화장터 목록

공동묘지 (Cemetery)	브랜드우드 앤드(Brandwood End)
	핸즈워스(Handsworth)
	키힐(Key Hill)
	킹 노튼(Kings Norton)
	롯데 힐(Lodege Hill)
	퀸턴(Quinton)
	서턴 콜드필드(Sutton Coldfield)
	서턴 뉴 홀(Sutton New Hall)
	워스톤 레인(Warstone Lane)
	위턴(Witton)
화장터 (Crematorium)	야들리(Yardley)
	롯데 힐(Lodege Hill)
	서턴 콜드필드(Sutton Coldfield)
	야들리(Yardley)

- 가족 뿌리찾기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
 - 고인의 이름, 성, 묘지 위치, 장례일 등을 입력하면 고인의 사망 당시 나이, 성별, 생전 주거지, 사망일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음

- 5파운드(7,300원)를 결제하면 더 자세한 개인 족보와 선조의 역사적 기록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가능



[그림 1] 버밍엄 뿌리찾기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190/new_database_to_help_brummies_discover_their_roots?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https://www.birminghamburialrecords.co.uk>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